

#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동성애 지식정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지<sup>1</sup> · 최남영<sup>2</sup>

<sup>1</sup>송호대학교, 조교수 · <sup>2</sup>강릉영동대학교, 부교수

## Effect of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Awareness and Homosexuality Knowledge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Hyun Ji, Kim<sup>1</sup> · Nam Young, Choi<sup>2</sup>

<sup>1</sup>*Songh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p>2</sup>*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impact factors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homosexuality knowledge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 :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5, 2022 to December 20, 2022. 201 nursing students who lived in the G city were recruited. 194 among 201 questionnaires answered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It was then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Result** : The participants' human rights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prove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r = -.50, p < .001$ ). The participants' homosexuality knowledge ha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human rights awareness( $r = .16, p = .028$ ). The research shows that the human rights awareness( $\beta = -.51, p < .001$ ) can determin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o a degree of 24.6%. **Conclusion** :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knowledge of homosexuality are the basis for improving ethical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Homosexuality, Human rights, Nursing stud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동성애는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며,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1]. 또한 197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Ⅲ(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Ⅲ, DSM Ⅲ)에서 동성애에 대한 항목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해 사회적 내부의 갈등이 모두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병적으로 치부했던 사회의 인식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던 연구에서 과거 동성애자에게 부정적이었던 태도는 점차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관점의 변화를 제시한다[2].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일부분 향상 되었으나 여전히 주변 국가들에 비해 그 변화폭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절대적인 표준점수도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다[3]. 이러한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편견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4]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업군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서비스 제공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5].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는 간호대상자의 성적지향 등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전문직의 특성상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6].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전문직의 윤리와 전인적인 간호를 받아들이고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시기를 거치며 전문직화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의식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의 형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7]. 하지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중 의료인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고, 의료인의 인권의식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체 내지는 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8]. Hong 등의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7]에서도 간호대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보다 자신의 인권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의 인권신장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의 특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권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권리를 말하며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행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이다[9]. 이러한 인권의식이 대상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정신질환자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연구[9-11]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함께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성별, 연령, 종교성향, 권위주의적 성향, 문화적 가치, 성역할 태도,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평등의식, 옹호적 태도, 사회활동 참여, 동성애자 지인 유무, 동성애 지식 등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5,12,13,15].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높은 동성애 지식 정도는 동성애자의 사회적 차별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은 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직접적인 차별적 태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1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다른 전공학과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타집단 보다 높은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처럼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인권의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지식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인본주의적 환자 중심의 치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지식의 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권의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지식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문간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

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7개로 투입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53명의 대상자가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1부 모두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설문 7부를 제외한 19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인권의식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Getz[16]가 개발하고 심정미[17]가 수정·보완한 인권태도검사(Attitudes toward Human Right Inventory)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기회의 평등, 생명·복지·건강의 권리, 정치적 자유 및 사생활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이었다.

### 2)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연진[18]의 연구 도구를 참고하여 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3점 척도(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이었다.

### 3)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과 Ricketts[19]가 개발하고 김용희와 반건호[20]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동성애 공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동성애자와 접촉하거나 가까

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에 대해 묻는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2022년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G시 소재 G대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대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문 전 대상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과정,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모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의 소요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였다. 참여자에게는 약 2,000원 상당의 문구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4명 중 여학생 160명(82.5%), 남학생 34명(17.5%)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종교가 없는 학생은 139명(71.6%), 종교가 있는 학생은 55명(28.4%)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가 184명(94.8%)으로 대부분이었고, 30~39세는 7명(3.6%), 40~49세는 3명(1.5%)이었다. 동성애자 지인 유무에서는 지인이 없는 경우가 124명(63.9%), 지인이 있는 경우가 70명(36.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100점 만점에 남자 74.35점, 여자 55.45점으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5.82, p<.001$ ).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 64.36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56.5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68, p=.008$ ). 지인유무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지인이 있는 경우 50.00점, 지인이 없는 경우가 63.71점으로 지인이 있는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t=-5.25, p<.001$ ). 연령에 따른 변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의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79.28( $\pm 7.58$ )점, 동성애 지식 정도는 8점 만점에 평균 2.44( $\pm 1.22$ )점으로 나타났고,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정도는 115점 만점에 58.76( $\pm 18.62$ )점이었다(Table 2).

**Table 1.**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94)

Characteristic	Category	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 or F	p
			M±SD		
Gender	Male	34(17.5)	74.35±15.81	5.82	<.001
	Female	160(82.5)	55.45±17.49		
Religion	Yes	55(28.4)	64.36±18.40	2.68	.008
	No	139(71.6)	56.55±18.30		
Age	20~29	184(94.8)	58.44±18.25	1.33	.267
	30~39	7(3.6)	59.86±27.38		
	40~49	3(1.5)	76.00±16.52		
homosexual acquaintance	Yes	70(36.1)	50.00±15.96	-5.25	<.001
	No	124(63.9)	63.71±18.24		

**Table 2.** The Level of Study Variables

(N = 194)

Variable	M±SD	Min	Max
Human Rights Awareness	79.28±7.58	60.00	97.00
Homosexuality Knowledge	2.44±1.22	0.00	6.00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58.76±18.62	23.00	113.00

### 3. 대상자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 $r = -.50, p < .001$ )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의식과 동성애 지식정도( $r = .16, p = .028$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with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Awareness, Homosexuality Knowledg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 = 194)

	1	2	3
	r(p)		
1.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1		
2. Human Rights Awareness	-.50(<.001)	1	
3. Homosexuality Knowledge	-.03(.651)	.16(.028)	1

### 4.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종교 유무, 동성애자 지인 유무를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2.19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설명력은 39.7%였으며,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권의식( $\beta = -.40, p < .001$ ), 성별( $\beta = -.27, p < .001$ ), 동성애자 지인 유무( $\beta = -.22, p < .001$ ), 종교 유무( $\beta = -.16, p = .004$ ) 순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지식정도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 = 194)

Variable	B	S.E.	$\beta$	t	p	VIF	R <sup>2</sup>	Adj R <sup>2</sup>	F(p)
(Constant)	154.00	11.05		13.93	<.001				
Gender <sup>†</sup>	-13.02	2.87	-.27	-4.54	<.001	1.10			
Religion <sup>†</sup>	-6.72	2.33	-.16	-2.89	.004	1.02	.41	.397	26.43
homosexual acquaintance <sup>†</sup>	-8.61	2.27	-.22	-3.80	<.001	1.10			(<.001)
Human Rights Awareness	-0.98	0.14	-.40	-6.83	<.001	1.10			
Homosexuality Knowledge	0.58	0.88	.04	.66	.511	1.06			

† Dummy variables : Gender(Male=0), Religion(Yes=0), homosexual acquaintance(No=0)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4,21,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4]. 아직도 한국 사회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통적이며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동성애자 인권 지지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5]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동성애 인권에 더욱 지지적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며 매우 적극적인 종교생활을 지남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3].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교리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인 것으로 동성애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동성애 지인유무로 동성애 지인이 있는 경우보다 지인이 없는 경우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23]에서 지인이 있는 경우 동성애 혐오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식 영향 변인연구[24]에서 동성애 지인이 있는 경우 동성애 지인이 없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다 유의미하게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권의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79.28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7점 만점으로 조사한 연구[5]에서 중간점을 조금 웃도는 평균 4.49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결과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연구[3]에 따르면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가시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대상자들의 동성애 지식정도는 8점 만점에 평균 2.44점으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동성애 지식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2.97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12]. 또한 2016년에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결과[8]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인권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2%의 높은 비율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12.8%만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나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평등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국내의 인권상황은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해 불편한 시선과 차별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성애주의적 시각이 우세한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의 위치는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이에 동성애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정도는 58.7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점 만점으로 변환 시 2.56점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13]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2.75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5]에서는 5점 만점에 2.19-2.87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간정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23]에서는 평균 83.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간호사보다 간호대학생의 경우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했고, 대상자들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편차 및 도구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인권의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태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인권의식과 동성애 지식정도( $r=.16, p=.028$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에이즈 및 동성애자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12]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및 동성애 차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권의식이 높을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권의식은 동성애에 대한 지식정도와 함께 변화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인권의식( $\beta=-.40, p<.001$ ), 성별( $\beta=-.27, p<.001$ ), 동성애자 지인 유무( $\beta=-.22, p<.001$ ), 종교 유무( $\beta=-.16, p=.004$ ) 순으로 나타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식이었다. 직접적으로 인권의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본 연구와 유사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9-11]의 결과 인권의식의 증가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권옹호를 위한 캠프에 참여한 대상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었다는 선행연구[26]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연구인 대학생들의 동성애자 인권지지도 영향요인 연구[5]에서 일반적 인권보장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더라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 인권보장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10개의 항목 중 인권 보장 수준에서 신체의 자유, 교육권, 건강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 등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동성애 인권 항목에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이 항목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항목들로서 실제 현실을 반영한 응답이 될 수 있다. 이에 인권의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전체 평균 비교보다는 구체적 항목 비교가 필요하며 인권의식 항목 척도로 사용하는 도구들

이 일반적 인권의식을 평가하는 도구보다는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반영한 현실적 도구들이 개발되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어떤 연구가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대상자들이 받은 인권교육의 유무와 시점, 다양한 영향요인들의 차이로 야기된 결과일 수 있으며 표본의 성향에 대한 차이로 인한 한계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전문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획득해야하며 전인간호를 위한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보다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자질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권의식의 함양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의식은 동성애자의 의료적 접근에 대한 차별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27]. 하지만 현재 간호교육과정은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적 측면 위주로 편재되어 있어 인권교육에 대해 참여하거나 경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동성애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배제된 건강문제 및 성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간호대학생의 질 높은 간호 역량의 성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문간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

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정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긍정적이었고,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에서 높았으며 지인이 있는 경우가 지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들의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 $r = -.50, p < .001$ )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권의식과 동성애 지식정도( $r = .16, p < .028$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권의식, 동성애 지식정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권의식으로 나타났으며 동성애 지식정도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종교, 지인 유무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유사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함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간호대학생들의 인권의식정도와 동성애 지식정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인권의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들이 차별받거나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고 소중한 가족, 동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 및 모든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모집 대상으로 하였으나 인권교육을 받기 전·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하며 더 나아가 일반

적 인권교육이 아닌 동성애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후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 동성애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전달 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law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ternet].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6 [cited 2022 May 18].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2. Kim MO, Ha JY. A study on sexual autonomy,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3):723-732.  
DOI :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3.068>
3. Yoo EH.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in Korea. *Korea Open Access Journals*. 2018;44(3):185-209.  
DOI : <https://doi.org/10.15820/khjss.2018.44.3.009>
4. Seo YS, Lee JL, Cha JH.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and cultural valu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homophobia.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18(1):177-199.
5. Lee HJ, Sung JS. A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pport for lesbian and gay human right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6;14(2):109-119.
6. Jung MS, Park KO, Kim SY, Kim EK, Kim JK. *Introduction to Nursing*. 5th. Seoul: Hyunmoonsa; 2022. p.121-127.
7. Hong SW, Kim JS, Hyun HJ.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1;11(6):260-269.
8. Koo JW. *Public Opinion Survey on Human Rights, 2016 : General Public*, Seoul: Sung kyun kwan University; 2019 September.  
DOI: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21-V1.0>
9. Ju HK, Lee KJ, Kim HS.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3;22(3):169-179.
10. Kim W. The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 multicultural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2021;60:239-259.  
DOI : <https://doi.org/10.17924/solc.2020.60.239>
11. Chong SW, Kang EY. Analyzing the difference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based upon human rights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2017;10(2):175-208.
12. Kim YJ.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n HIV/AIDS and homosexuals among Korean adults. [master's thesis]. Seoul: Sahmyook University Seoul; 2019. p.1-79.
13. Park SA, Shin KS, Kim HY.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stereotyp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7):68-77.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7.68>
14. Kim CE.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dating violence perception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ender and sexual self-assertion. [master's thesis].

- Daejeon: Hannam University; 2022. p.1-77.
15. Shin SJ, Lee WJ. Equality and advocacy attitudes on their stigma attached to homosexuality.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prejudice against mentally disordered peopl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pheres of contro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17;39:29-58.
16. Getz I.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disserta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17. Sim JM.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f old women on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master's thesis]. Daegu: Daegu University; 2019. p.1-65.
18. Kim YJ.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n HIV/AIDS and homosexuals among Korean adults. [master's thesis]. Seoul: Sahmyook University; 2019. p.1-79.
19. Hudson WW, Ricketts WA. A strategy for the measurement of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1980;5(4):357-372.
20. Kim YH, Bahn KH. An investigation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index of homophobi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10(3):327-336.
21. Lee JH, Sim DY, Yang MO, Kim HS. The effects of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on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1):543-553.
-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543>
22. Jang IS.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8):560-56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560>
23. Kim MK. The influence of nurses's experience and homophobia toward sexual minority patients on competency." [master's thesis]. Seou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6. p.1-82.
24. Bae EK, An EM, Baik HU.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perception towards sexual minoritie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2014; 25(1):403-424.
25. Blackwell CW. Belief in the "free choice" model of homosexuality: A correlate of homophobia in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LGBT Health Research, 2007;3(3):31-40.  
DOI :<https://doi.org/10.1080/15574090802093117>.
26. Alicia AL. Standing "straight" up to homophobia: straight allies' involvement in GSAs. Journal of LGBT Youth. 2015;12(2):144-169.  
DOI :<https://doi.org/10.1080/19361653.2014.969867>
27. Zelle A, Tamatha A. Psychosocial effects of health dispariti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older adul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2015;53(7):25-30.